

# 김종직 <탁라가>의 이본 고찰

윤치부\*

## <차례>

1. 머리말
2. 서지적 개관
3. 이본의 대교
4. 대교 결과에 대한 분석
5.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제주의 풍토와 물산을 노래한 칠언절구인 김종직의 <탁라가>에 대한 이본 연구이다. 이를 통해 그 정본과 이본들의 계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김종직의 <탁라가> 14수를 수록한 문헌들로는 크게 김종직의 작품들을 수집하여 간행한 점필재집류, 여러 문사의 시문을 초선하라는 왕명을 받고 간행한 속동문선류, 제주 지지에 수록된 탐라지류, 저자들이 제주에 관리로 왔던 경험을 기록한 남사록류나 남사일록류,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한 개인의 평생에 걸쳐 정리한 문학과 역사를 기술한 심재집류 등으로 나누어진다. 점필재집류에는 경진본, 기축본, 기유본, 기사본, 임진본, 정사본, 무인본 『점필재집』 등 7종이 있는데, 이본 간에는 글자의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속동문선류에는 을해자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도서관본, 필서체자 목판본의 규장각본, 경희출판사 영인본, 경원문화사 영인본 등 4종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본과 경원출판사본이 같은 계통이고, 규장각본과 경희출판사본이 같은 계통의 이본이다. 탐라지류에는 이원진의 『탐라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 제주대학교

동경대학본 『탐라지』, 담수계의 『증보탐라지』 등 4종이 있는데, 이본 간에는 글자의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사록에는 규장각본 『남사록』, 청음유집본 『남사록』 등 2종이 있는데, 후자는 전자를 재정리한 것이다. 남사일록류는 이종의 『남사일록』이 있는데, 남사록류 계통에 가까운 이본이다. 심재집류에는 김석익의 『심재집』이 있는데, 동경대학본 『탐라지』 계통의 이본이다. 이 중 가장 정본에 가까운 이본은 『점필재집』으로 오자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가장 높았다.

핵심어 : 탁라가, 김종직, 점필재집, 속동문선, 탐라지, 남사록

## 1. 머리말

지금까지 제주의 풍토와 물산을 노래한 칠언절구인 김종직의 <탁라가>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2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단계는 김종직의 시세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탁라가>를 부분적으로 다루는 단계인데, 박선정·정석용·정경주·김성규·이연순·이원걸 등이 대표적이다.<sup>1)</sup> 이들은 김종직의 <동도악부(東道樂府)>·<금성곡(錦城曲)>·<문경팔영(聞慶八詠)>·<십절가(十絶歌)> 등과 함께 다루면서 <탁라가>의 기속시(紀俗詩)로서의 면모

1) 朴善楨, 「佔畢齋 金宗直 研究」, 高麗大 博士論文, 1986, 187~191쪽.; 朴善楨, 「佔畢齋 金宗直 文學 研究」, 二友出版社, 1989, 145~147쪽.; 鄭錫龍, 「金宗直 漢詩 研究」, 壇國大 碩士論文, 1986, 75~78쪽.; 鄭錫龍, 「金宗直의 漢詩 研究」, 暎園大 博士論文, 2001, 71~73쪽.; 鄭景柱, 「佔畢齋 紀俗詩의 文明意識에 대하여」, 『石堂論叢』16, 東亞大 石堂傳統文化研究院, 1990, 137~140쪽.; 金成奎, 「佔畢齋의 歷史·風俗詩에 대하여Ⅱ : <탁라가>·<금성곡>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11, 한성대 국어국문학과, 1992, 102~106쪽.; 이연순, 「佔畢齋 金宗直의 樂府詩 研究」,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0, 83~85쪽.; 李源杰, 「金宗直의 紀俗詩에 反映된 民族 生活相과 風俗美」, 『漢文學報』5, 우리한문학회, 2001, 55~85쪽.; 李源杰, 「金宗直의 連作 紀俗詩에 形象된 觀風易俗 理念」, 『退溪學』14, 安東大 退溪學研究所, 2004, 29~65쪽.; 이원걸, 『金宗直의 풍교 시문학 연구』, 박이정, 2004, 227~238쪽.

에 초점을 맞추어 살피고 있다. 둘째 단계는 <탁라가>만을 독립적으로 고찰하는 단계이데, 윤치부의 연구가 있다.<sup>2)</sup> 이 연구에서는 <탁라가>의 창작배경과 이본, 작품세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이본에 대한 고찰이 개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이본이 등장함으로써 이를 보완하여 더욱 정밀하게 정본을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독립적인 <탁라가> 연구의 첫 과제로 이본 간의 고찰을 중점적으로 시도하여 김종직의 <탁라가>에 대한 정본을 파악하고 이본 간의 계통을 파악함으로써 본격적인 <탁라가> 연구의 시발점을 삼고자 한다.<sup>3)</sup>

## 2. 서지적 개관

지금까지 밝혀진 <탁라가>의 수록 문헌으로는 『점필재집(佔畢齋集)』(경진본·기축본·기유본·기사본)·『속동문선(續東文選)』(국립중앙도서관본·규장각본·경희출판사영인본·경원문화사영인본)·『해동잡록(海東雜錄)』(본가보존본·대동야승본)·『탐라지(耽羅志)』(李元鎮·李源祚·日本東京大學本·淡水契)·『

2) 윤치부, 「김종직 <탁라가>의 존재양상과 작품세계」, 『초등교육연구』14/1, 제주대 초등교육연구소, 2009, 1~36쪽.

3) 일찍이 權文海는 《大東韻府群玉》 6권의 ‘歌’항에서 瑠璃王의 <황조가> 등과 함께 23편의 우리나라 노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김종직의 한시로서는 <탁라가>만을 유일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만큼 일찍부터 <탁라가>는 조선조 문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인지 <탁라가>의 운을 차운한 金尙憲의 <보탁라가 점필재 운을 차운하여(補毛羅歌 敬次佔畢齋云)>, 李增의 <점필재 탁라가 시운에 따라(次佔畢齋毛羅歌以記行)>, 南九明의 <보탁라가>·<중보탁라가>·<우보탁라가> 등을 비롯하여 그의 제자인 崔溥의 <탐라제영장구(耽羅題詠長久)> 등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문헌들에 걸쳐 나타나는 <탁라가>의 이본들을 대교하여 정본을 파악하고, 그 문학적·사상적 의미들은 어떤 것인지를 살피며, 왜 이 작품이 조선조 문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그리고 후대 작품에 끼친 영향은 어떤 것이며, 나아가 점필재 문학에서 <탁라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후속작업으로 계속 고찰하고자 한다.

남사록(南槎錄)』(奎章閣本·淸陰遺集本)·『남사일록(南槎日錄)』·『심재집(心齋集)』·『제주도실기(濟州島實記)』·『탐라시선(耽羅詩選)』 등 무려 9책 20종이나 된다. 그러나 『해동잡록』에는 6수와 8수만을 수록하였고,<sup>4)</sup> 『제주도실기』에는 3수만을 수록하였으며,<sup>5)</sup> 『탐라시선』은 최근에야 간행된 저서로서 정본 파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sup>6)</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탁라가> 전문이 수록된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남사록』·『남사일록』·『심재집』 등 6책 16종의 이본을 중심으로 이들 문헌들의 <탁라가> 수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2.1 점필재집 수록 탁라가

『점필재집』은 조선 초기의 문신 김종직의 시문집으로 저자가 죽은 다음 해인 1493년(성종 24) 그의 제자 조위(曹偉)에 의하여 편집되었고, 1494년에 원고를 모으라는 성종의 명이 있었으나 성종의 사망으로 간행하지 못하였다. 그 뒤 1497년(연산군 3) 정석견(鄭錫堅)에 의하여 최초로 간행되었으나 무오사화로 불타버린 후 수차례에 걸쳐 간행되었으니 현존하는 판본을 그 간행 순서에 따라서 분류하면 경진본(1520, 南袞序), 기축본(1649, 李曼刻), 기유본(1789, 李獻慶序), 기사본(1869, 金植刻), 임진본(1892, 宋秉璿跋), 정사본(1917, 金基鴻校), 무인본(金泰鎭跋) 등이 있다.<sup>7)</sup>

경진본은 무오사화 이후 22년 만인 1520년(중종 15) 선산(善山)에서 간행한 것인데, 이 판본의 간행 경위에 대해서는 남곤의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서문에 의하면 “무오사화로 말미암아 점필재가 화를 입게 되자 최초 저자의 문집은 모두 불에 타버렸고 들보 위에 있던 난고(亂稿)마

4) 權鼈, 『海東雜錄』下(影印), 太學社, 1986, 187쪽. ; 민족문화추진회, 권덕주 역, 『국역대동야승』V, 민족문화추진회, 1971, 191쪽.

5) 金斗奉, 『濟州島實記』, 濟州市愚堂圖書館, 2003, 167쪽.

6) 吳文福 編譯, 『耽羅詩選』, 이화문화출판사, 2006, 395~408쪽.

7) 金윤수, 『『佔畢齋集』의 판본 연구』, 『書誌學研究』35, 書誌學會, 2006, 307쪽.

저 가인들이 불상지물(不祥之物)로 여겨 불에 던졌는데, 그런 와중에 문집 10분의 1·2 정도를 건져내어 저자의 생질인 강중진(康仲珍)이 선산의 읍재(邑宰)와 더불어 간행하였다”라고 하였다.<sup>8)</sup> 이 경진본은 매장 10행 19자의 목판본으로 시집 23권, 문집 2권 도합 25권 7책인데 계명한문학연구회에서 영인 간행한 『점필재선생전서』1권과 2권에 수록하였는데,<sup>9)</sup> 이 가운데 <탁라가>는 「乙酉二月二十八日宿稷山之成歡驛濟州貢藥人金克修亦來因夜話略問風土物產遂錄其言爲賦毛羅歌十四首」라는 제목으로 1권의 시집 권1에 14번째로 수록되었다.<sup>10)</sup>

기축본은 1649년(인조 27)에 중간된 것으로 추측되나 서문이나 간기가 없으므로 정확한 간행연대를 고증할 수는 없으나 『이존록(彝尊錄)』의 간기를 보면 “홍치(弘治) 10년 정사에 처음으로 책을 출판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없어서 전하지 않다가 100여 년 후인 기축년에 이르러 문집은 방백 이만이 다시 인쇄 배포하였고 『이존록』은 예림서원에서 중간하였다”라고 하여 초간본이 정사년에 간행되었으나 임진란으로 없어서 전하지 않다가 기축년에 이만이 인쇄 배포하였다고 했다.<sup>11)</sup> 이만의 생몰연대(1605~1664)를 통해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기축년은 1649년이며, 당시 이만은 경상도관찰사로 있었으므로 간행 장소는 밀양 예림서원(禮林書院)일 것으로 추측된다.<sup>12)</sup> 기축본은 대부분 경진본의 체재를 따르고 있으나 경진본과는 달리 처음으로 두주(頭註)가 붙는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영인한 규장각본 『한국문집총간』의 『점필재집』(시문집)과<sup>13)</sup>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이조명현집』2의 『점필재선생집』 시집과<sup>14)</sup> 국립중앙

8) 啓明漢文學硏究會, 「佔畢齋先生全集 解題」, 『佔畢齋先生全書』一, 學民文化社, 1996, 4쪽.

9) 啓明漢文學硏究會, 『佔畢齋先生全書』一, 學民文化社, 1996, 1~450쪽.; 啓明漢文學硏究會, 『佔畢齋先生全書』二, 學民文化社, 1996, 451~956쪽.

10) 啓明漢文學硏究會, 『佔畢齋先生全書』一, 學民文化社, 1996, 28~31쪽.

11) 民族文化推進黨, 『韓國文集叢刊』12, 民族文化推進黨, 1988, 447~448쪽.

12) 啓明漢文學硏究會, 「佔畢齋先生全集 解題」, 『佔畢齋先生全書』一, 學民文化社, 1996, 5쪽.

13) 民族文化推進黨, 앞의 책, 207~506쪽.

도서관에서 영인한 일본존경각문고본 『점필재집』<sup>15)</sup>이 기축본이다.<sup>16)</sup>

기유본은 1789년(정조 13) 11월 명현의 문집에 서문이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점필재의 후손 김상도(金相度)가 이헌경에게 부탁하여 짓게 하고 서문을 짓는 동시에 점필재의 손자 김뉴(金紐)가 편찬한 <연보문인록>을 교정하게 하여 보판이 된 것으로<sup>17)</sup> 이 판본은 경진본이나 기축본과 그 체재가 상당히 다르다. 시집 8권 4책, 문집 2권 2책, 연보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는 매장 10행 20자로 되어 있다. 『점필재선생문집』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sup>18)</sup>

기사본은 기축본이 나온 뒤 220년 뒤인 1869년(고종 6)에 점필재의 13대손 김식이 밀양 예림서원에서 간행한 것인데, 시집 8권, 문집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는 매장 10행 20자, 문은 10행 19자로 되어있으나 일정하지 않다.<sup>19)</sup>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이조명현집』<sup>2)</sup>에 실린 『점필재집』의 시집(기축본)을 제외한 문집과 계명한문학연구회에서 영인한 『점필재선생전서』의 임진본이 실상은 기사본이다.<sup>20)</sup> 이 기사본은 기유본과 글씨체와 책판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기유본을 보판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본은 1892년(고종 29) 후손 김계현(金啓鉉)·김창현(金昌鉉) 등에 의하여 예림서원 훼손 이후 유실된 기사본의 책판을 수보(修補)한 것이다. 이 판본은 기사본의 판을 그대로 사용하여 대체로 먹이 선명하지만 수보

14)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李朝名賢集』二,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96, 228~229쪽.

15)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영인하여 청구기호 古3648-10-575-1로부터 古3648-10-575-17까지 23권 17책으로 소장하고 있다.

16)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규장각본 『점필재집』에는 句點이 있으나 일본존경각문고본과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영인한 『점필재집』에는 句點이 없다.

17) 김윤수, 앞의 논문, 322쪽.

18)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古3648-10-843-1로부터 古3648-10-843-7까지 시집 8권 4책, 문집 2권 2책, 연보 1책, 共7책 등 모두 9책으로 되어 있다.

19) 啓明漢文學硏究會, 앞의 글, 5쪽.

20) 啓明漢文學硏究會, 『佔畢齋先生全書』三, 學民文化社, 1996, 957~1500쪽. ; 啓明漢文學硏究會, 『佔畢齋先生全書』四, 學民文化社, 1996, 1501~1874쪽.

한 판은 자체가 치졸하고 일목요연하지 않다.<sup>21)</sup>

정사본은 1917년 정사년에 대구의 방각본업자 출신 김기홍이 교정하여 간행한 보판본이다. 송병선의 발문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임진본 책판을 인쇄한 것이다.<sup>22)</sup>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시집의 경우 1권에 목록만 수록되어 있고 시 전문은 빠져있다.

무인본은 임진본을 간행한 지 46년이 지난 1938년 무인년에 간행된 본이다. 이 판본은 임진본의 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점필재 선생의 15대손인 김태진의 발문만을 첨입한 것으로 내용과 편차는 모두 임진본과 동일하나 다만 한지가 아닌 양지에 인쇄한 것이 다르다.<sup>23)</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비교적 간행연대가 앞선 경진본, 기축본, 기유본, 기사본의 네 이본을 대교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 2.2 속동문선 수록 탁라가

『속동문선』은 신용개(申用溉)·김전(金銓)·남곤(南袞) 등에 의해서 1518년(중종 13) 편찬하였는데, 이는 『동문선』의 취지를 이어받아 40년이 지난 후 여러 문사의 시문을 다시 초선(抄選)하라는 왕명에 의해서이다. 『동문선』이 신라나 고려 시대의 불교문화 융성에 의해 불교 관계 문장이 특히 많았다면 『속동문선』은 성종 이후 송유배불의 유교 중심 문화적 배경에서 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수록된 작가들이 서거정·강희맹·김수온·김종직·남효은·김일손·김시습·박은·성현 등 대부분 유학자 중심이다. 유학자 중에서도 김종직 등의 사람과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속동문선』의 판본은 대략 다섯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는데, 1518년(중종 13) 간행의 매장 10행 18자의 을해자 초인본(乙亥字 初印本), 중종 말경으로부터 명종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매장 10행 19자의 을해자

21) 啓明漢文學硏究會, 앞의 글, 6쪽.

22) 김윤수, 앞의 논문, 323쪽.

23) 啓明漢文學硏究會, 앞의 글, 7쪽. ; 김윤수, 위의 논문, 324쪽.

재인본인 동문선 정속편 합본(正續編合本), 1615년(광해군 7) 11월 간행의 매장 10행 19자의 훈련도감자 인본(訓練都監字印本), 간행 연대를 밝히기 어려우나 판본의 자체는 을해자 인본과 일치하는 필서체자 목판본(筆書體字 木版本), 훈련도감자본을 그대로 탐각한 훈련도감자 번각본 등 모두 5종이다.<sup>24)</sup> 그러나 을해자 초인본은 임진왜란으로 거의 없어졌고,<sup>25)</sup> 정속편 합본(正續編合本)도 역시 병화(兵火)에 거의 없어졌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본으로는 을해자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도서관본, 필서체자 목판본의 규장각본, 경희출판사 영인본(1966), 경원문화사 영인본(1992) 등 4종이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은 매장 10행 19자로 모두 21권 10책인데, <탁라가>는 9권 칠언절구편에 수록되었다. 규장각본 중 매장 10행 19자의 훈련도감자 인본은 권11~12, 권14, 권19~21, 권21 일부 등 모두 4책의 낙질본으로 <탁라가>가 전해지지 않는 반면 매장 10행 19자의 목판본은 23권 1책으로 <탁라가>가 권9 칠언절구에 전해진다. 경희출판사 영인본은 매장 10행 19자의 필서체자 목판본으로 21권인데 다른 이본과는 달리 구점(句點) 표시를 하였으며, <탁라가>는 권9의 오언절구편에 전해진다. 1968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경희출판사 영인본을 참고하여 국역·출판하였다.<sup>26)</sup> 경원문화사 영인본은 매장 10행 19자로 모두 21권인데, 자체는 국립중앙도서관본과 거의 같으나 다른 글자가 쓰인 곳도 눈에 띈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본과는 달리 서(序)·진전(進箋)·찬집전후관(撰集前後官)·목록상·목록하 등이 수록되어 다른 이본으로 추정된다.<sup>27)</sup> 이 가운데 <탁라가>는 권9의 칠언절구편에 수록되었다.<sup>28)</sup>

24) 김두중, 『동문선』 해제, 『국역 동문선』 I, 민문고, 1989, 2~3쪽.

25) 국립중앙도서관본 『속동문선』은 10책뿐인 낙질본이나 을해자 초간본으로 추정된다.

26) 申用漑 外, 양주동 외 공역, 『국역동문선』10, 솔출판사, 1966, 1~913쪽.

27) 경원문화사, 『韓國漢詩文選集』5, 경원문화사, 1992, 1~2쪽.

28) 위의 책, 193~194쪽.



## 2.3 탐라지 수록 탐라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대표적인 『탐라지』로는 이원진의 『탐라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작자 미상의 일본동경대학본 『탐라지』, 담수계의 『증보 탐라지』 등이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는 그가 제주목사로 재임하던 1653년(효종 4) 가을에 당시 전적(典籍) 고흥진(高弘進)의 감교(監校)로 완성되어 목판으로 간행되었던 현존 최고의 제주 지지이다.<sup>29)</sup> 이원진은 1651년(효종2) 7월 제주목사로 도입하였다가 1653년 10월에 이임하고 있는데, 『탐라지』는 바로 이 무렵의 기록이다. 이 책은 옛 제주의 세 고을인 제주목·정의현·대정현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 그 하위에 ‘건치연혁(建置沿革)’편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제영’편(정의현에서는 열녀편, 대정현에서는 고적편)까지 기술하고 있다. 책의 맨 뒤에는 계사년(1653년) 9월 상순에 황해도 평성(平城) 사람 신찬(申纘)이 쓴 발문이 수록되었다.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탐라가>는 이 가운데 제주목의 제영편(題詠篇)에 수록되었다.<sup>30)</sup>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은 그가 제주목사로 재임하던 1843년(현종 9)에 기록한 필사본이다. 이 책은 모두 4권으로 되어있는데, 1권에는 제주목의 ‘건치연혁’편부터 ‘학교’편까지 15개 항목, 2권에는 제주목의 ‘공해(公廡)’편부터 ‘고적’편까지 21개 항목, 3권에는 제주목의 ‘기문(奇聞)’편부터 ‘판관(判官)’편까지 6개 항목, 4권에는 정의현과 대정현의 항목들이 제주목과 함께 수록되었으나 내용이 없는 일부 항목들은 생략되었다. 이 중 김종직의 <탐라가>는 2권의 제주목 제영편에 수록되었다.<sup>31)</sup>

일본동경대학본의 『탐라지』는 누가 편찬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선생안

29) 김행옥, 「탐라지 해제」,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203쪽.

30) 李元鎮, 金相助 譯, 『耽羅志』,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91, 120~122쪽. ; 이원진, 김찬흡 외 역,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115~117쪽.

31) 李源祚, 『耽羅誌草本 外』(影印),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9, 157~159쪽. ; 李源祚, 고창석 외 역, 『耽羅誌草本』(上), 濟州教育博物館, 2007, 188~150쪽.

조(先生案條)’에 이선식(李宣植) 목사까지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1848년(헌종 14) 3월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sup>32)</sup> 이로 보면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이 간행된 직후에 편찬된 것이다. 그 체재와 내용이 이원진의 『탐라지』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단지 제주목의 내용만 수록되었고 대정현과 정의현의 내용은 빠져있다. 이 책 권1에는 ‘건치연혁’편부터 ‘인물(효열 충의)’편까지 수록되었고, 권2에는 ‘제영’편부터 ‘은홀’편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이 중 김종직의 <탁라가>는 2권의 제영편에 수록되었다.<sup>33)</sup>

담수계의 『증보탐라지』는 1954년 편찬된 프린트판 필사본 지지이다.<sup>34)</sup> 이 책은 앞서의 다른 『탐라지』들과 비록 체제는 다르나 내용에 있어서는 앞선 지지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리’편부터 ‘관풍안’편까지 모두 17장으로 나누어졌다. 이 가운데 ‘연혁’편에는 ‘통사(通史)·기문전설(奇聞傳說)·제영·구례(舊禮)’편 등이 있는데, 김종직의 <탁라가>는 이 중 제영편에 전문이 수록되었다.<sup>35)</sup>

## 2.4 남사록 수록 탁라가

『남사록』은 김상현이 1601년(선조 34) 제주도에서 발생한 길운절(吉雲節)의 역옥(逆獄)을 다스리기 위한 안무어사로 파견되었다가 이듬해 복명하기까지의 제주의 인구·기후·역사·지리·물산·풍속·언어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목민관들의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 왜구의 침범에 대한 성곽·군사·군량·병기, 나라에서 수렴하는 토산물의 수량, 이르는

32) 高昌錫, 「耽羅誌 解題」, 『耽羅誌』(影印),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9, 2쪽.

33) 南萬里 外, 『耽羅誌』(日本東京大學所藏本),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9, 231~233쪽.

34) 淡水契는 일제강점기 때 식민정책에 의해 말살된 민족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광복 직후 제주도에 석학인 김석익·김찬희·김경중·김석우·김범준·김문희·김석호·백용석 등 12명이 결성한 지식인 그룹이다.

35) 淡水契, 『增補耽羅誌』, 濟州淡水契, 1954, 284~285쪽.; 淡水契, 『增補耽羅誌』, 濟州文化院, 2004, 252~254쪽.

곳마다 읊은 한시 등을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sup>36)</sup>

<탁라가>는 『남사록』2권의 1601년(선조 34) 9월 26일 경신조에 수록되었다. 이 <탁라가>의 바로 앞에는 김상헌의 <보탁라가 : 점필재의 운을 차운하여(補毛羅歌敬次佔畢齋韻)>를 수록하면서 풍토나 물산 같은 것 중 김종직이 <탁라가>에서 언급한 것은 중복되므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탁라가>는 제주의 풍토와 물산에 대한 것을 남김없이 상술하였기 때문에 삼가 기록하여 명륜당 위에 걸어놓아 민풍을 보려는 사람이 알 수 있게 갖추어 놓았다고 하였다.<sup>37)</sup>

지금까지 전해지는 『남사록』은 대개 세 이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는 김상헌의 손자 김수증(金壽增)이 지은 것으로 『와유록(臥游錄)』 속에 수록된 것이고, 둘째는 4권 2책의 규장각본이고, 셋째는 『청음유집(淸陰遺集)』권2에 수록된 복사본이다.<sup>38)</sup> 『와유록』에 수록된 <남사록초>는 극히 일부분의 내용만을 발췌하고 있어 <탁라가>가 수록되지 않았다.<sup>39)</sup> 그러나 송시열의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1669년(현종 10)으로 추정되는 규장각본과 김창현(金彰顯)의 발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규장각본을 취해서 그 내용의 순서를 정리하고 책의 편차와 권수를 가다듬어 1977년 재정리한 청유유집본에는 <탁라가>가 수록되었다.<sup>40)</sup>

## 2.5 남사일록 수록 탁라가

36) 金禧東, 金禧東 譯著, 「解題」, 『南槎錄』, 永嘉文化社, 1992, p.3.

37) “按佔畢齋毛羅歌 於本州風土物產之事 祥盡無餘 故謹錄如右 掛諸明倫堂上 以備觀民風者得焉”(『南槎錄』권2 신축년 9월 26일조)

38) 윤치부, 「최부 <탐라시>의 이본 고찰」, 『새국어교육』86,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459쪽.

3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臥遊錄』(韓國學資料叢書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340~343쪽.

40) 濟州道, 『濟州史資料叢書(Ⅰ)』, 濟州道, 1988, 372~375쪽.; 金尙憲, 洪琦杓 譯註, 『南槎錄(上)』, 濟州文化院, 2008, 94~96쪽.

이증(李增)의 『남사일록』은 1679년(숙종 5) 9월 16일 제주안핵겸순무 어사로 임명되어 동 12월 7일 제주의 화북포에 도착 입도하였다가 5개월 후인 이듬해 4월 4일 제주를 떠나기까지의 기록이다. 어사의 직책에 대해서는 물론 제주 삼읍의 지리, 풍속, 공납, 물산, 봉수와 연대, 무기체계, 호구와 인구, 방어시설과 군역의 수, 한라산 등반코스, 육지와 제주의 해상로 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당시 우의정이자 유학의 대가인 허목(許穆)이 1681년 발문을 쓴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 당시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필사본이다. 이 중 김종직의 <탁라가>는 제주를 떠나던 날인 경신년 1680년(숙종 6) 4월 초4일 계해조에 기록되었다.<sup>41)</sup>

## 2.6 심재집 수록 탁라가

『심재집』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김석익이 평생에 걸쳐 남긴 것을 문학과 역사로 나누어 영인한 필사본이다. 문학에는 시·서(序)·전(傳)·기(記)·행장(行狀)·묘표(墓表)·문(文)·고사(告辭)·찬(贊)·근역시화(權域詩話) 등이 수록되었고, 사학에는 <탐라기년(耽羅紀年)>·<탐라지>·「탐라관풍안(耽羅觀風案)」·<과한록상(破間錄上)>·<해상일사하(海上逸史下)>·<탐라인물고> 등이 수록되었다. 이 중 <탁라가>는 <해상일사하>에 수록되었다.<sup>42)</sup>

## 3. 이본의 대교

이본의 대교에서는 <탁라가>가 수록된 16종의 이본들을 대교함으로써 연구의 정보를 확정하는 데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6종의 이본에 대한 대교를 마치고 나서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대교표를 다시 정리

41) 李增, 金益洙 譯, 『南槎日錄』, 濟州文化院, 2001, 246~248쪽.

42) 金錫翼, 『心齋集』(郷土資料叢書2), 濟州文化社, 1990, 374~376쪽.

하였다. 첫째, 오자(誤字)·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고자(古字)·통자(通字)·전도자(顛倒字) 등을 모두 조사하였다. 둘째, 분명한 오자·동자·속자·약자·고자·통자만을 비고란에 표기하였다.

<표1> 김중직의 <탁라가> 이본 16종 대교표

首·句·字	점필재집				속동문선				탁라지				남사록		심재집	비고	
	경진본	기축본	기유본	기사본	국립중앙도서관본	규장각본	경희출판사본	경원출판사본	이원진	이원조	일본동경대본	담수계	규장각본	청음유집본			남사일록
1-2-2	重	重	重	重	重	重	重	重	重	重	重	重	重	重	重	重	
1-2-7	珍	珍	珍	珍	珍	珍	珍	珍	珍	珍	珍	珍	珍	珍	珍	珍	珍은 珍의 俗字
1-4-3	眞	眞	眞	眞	眞	眞	眞	眞	眞	眞	眞	眞	眞	眞	眞	眞	眞은 眞의 俗字
2-1-1	當	當	當	當	當	當	當	當	當	當	當	當	當	當	當	當	當은 當의 略字
2-2-2	儷	儷	儷	儷	儷	儷	儷	儷	儷	儷	儷	儷	儷	儷	儷	儷	儷은 儷의 誤字
2-2-3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는 來의 俗字
2-2-4	從	從	從	從	從	從	從	從	從	從	從	從	從	從	從	從	從은 從의 俗字
3-1-3	己	己	己	己	己	己	己	己	己	己	己	己	己	己	己	己	己·己는 己의 誤字
3-2-4	廟	廟	廟	廟	廟	廟	廟	廟	廟	廟	廟	廟	廟	廟	廟	廟	廟는 廟의 俗字
4-1-4	徒	徒	徒	徒	徒	徒	徒	徒	徒	徒	徒	徒	徒	徒	徒	徒	
4-1-5	數	數	數	數	數	數	數	數	數	數	數	數	數	數	數	數	數는 數의 略字
4-2-3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는 來의 俗字
4-3-3	掛	掛	掛	掛	掛	掛	掛	掛	掛	掛	掛	掛	掛	掛	掛	掛	
5-1-4	氣	氣	氣	氣	氣	氣	氣	氣	氣	氣	氣	氣	氣	氣	氣	氣	
5-2-6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은 草와 同字
5-2-7	間	間	間	間	間	間	間	間	間	間	間	間	間	間	間	間	間은 間의 俗字
5-4-7	閑	閑	閑	閑	閑	閑	閑	閑	閑	閑	閑	閑	閑	閑	閑	閑	閑은 閑의 俗字
6-4-3	盡	盡	盡	盡	盡	盡	盡	盡	盡	盡	盡	盡	盡	盡	盡	盡	盡은 盡의 俗字
6-4-7	湏	湏	湏	湏	湏	湏	湏	湏	湏	湏	湏	湏	湏	湏	湏	湏	湏는 湏의 俗字
7-1-2	螿	螿	螿	螿	螿	螿	螿	螿	螿	螿	螿	螿	螿	螿	螿	螿	螿는 螿의 誤字
7-1-3	海	海	海	海	海	海	海	海	海	海	海	海	海	海	海	海	海과 螟은 海의 誤字

7-1-4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蛤	月	月	蛤은 月の 誤字
7-1-5	與	與	與	與	與	與	與	與	與	與	與	與	與	與	與	與	與	与	與	与는 與와 同字
7-3-2	暮	暮	暮	暮	暮	暮	暮	暮	暮	暮	暮	暮	暮	暮	暮	暮	暮	暮	暮	
7-4-6	鮮	鮮	鮮	鮮	鮮	鮮	鮮	鱗	鮮	鮮	鮮	鮮	鮮	鮮	鮮	鮮	鮮	鮮	鮮	鱗은 鮮의 誤字
8-4-4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全	含	含	含	含	全	全	全	全	全	全	含	
9-2-3	磨	磨	磨	磨	磨	磨	磨	磨	磨	磨	磨	磨	磨	磨	磨	磨	磨	磨	磨	磨은 麿·磨과 同字
9-4-3	露	露	露	露	露	露	露	露	路	露	露	路	露	露	露	露	露	露	露	
10-1-3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草	艸	艸는 草와 同字
10-1-7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龍	竜	龍	龍	龍	龍	龍	龍	龍	竜은 龍의 古字
10-3-7	笑	笑	笑	笑	笑	笑	笑	笑	笑	笑	笑	笑	笑	笑	哭	哭	笑	笑	笑	哭은 笑의 誤字
10-4-2	怨	怨	怨	怨	恐	恐	恐	恐	怨	怨	怨	怨	怨	怨	怨	怨	怨	怨	怨	恐은 怨의 誤字
11-1-1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는 閭의 俗字
11-1-2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	閭은 閭의 俗字
11-1-5	游	游	游	游	游	游	游	游	遊	遊	遊	遊	游	淹	游	遊	游	游	游	游는 遊의 通字
11-2-5	樂	樂	樂	樂	樂	樂	樂	樂	樂	樂	樂	樂	樂	樂	樂	樂	樂	樂	樂	樂은 樂의 俗字
11-3-5	斷	斷	斷	斷	斷	斷	斷	斷	斷	斷	斷	斷	斷	斷	斷	斷	斷	斷	斷	斷은 斷의 俗字
11-3-7	脉	脉	脉	脉	脉	脉	脉	脉	脉	脉	脉	脉	脉	脉	脈	脉	脉	脉	脉	脉은 脈의 俗字
11-4-5	擢	擢	擢	擢	擢	擢	擢	擢	擢	擢	擢	擢	擢	捷	捷	捷	擢	擢	擢	
12-1-3	岳	岳	岳	岳	岳	岳	岳	岳	嶽	嶽	嶽	岳	岳	岳	岳	岳	岳	岳	岳	岳과 嶽은 同字
12-3-4	嵐	嵐	嵐	嵐	嵐	嵐	嵐	嵐	嵐	嵐	嵐	嵐	嵐	嵐	嵐	嵐	嵐	嵐	嵐	嵐은 嵐의 誤字
14-2-7	盃	盃	盃	盃	盃	盃	盃	盃	杯	杯	杯	杯	杯	杯	杯	杯	盃	盃	盃	盃는 杯의 俗字
14-4-7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는 來의 俗字

대교 결과 오자가 가장 많이 쓰인 이본은 『증보탐라지』(담수계)와 『남사록』(청음유집본)이 각각 4곳이며, 다음이 『속동문선』(경원출판사간행본)·『탐라지초본』(이원조)·『남사록』(규장각본)·『남사일록』이 각각 2곳, 『속동문선』(국립중앙도서관본·규장각본·경희출판사간행본)·『탐라지』(동경대학본)·『심재집』 등이 각각 1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동자도 몇몇 이본에 사용되었다. ‘水草→水艸(5-2-6), 海月與→海月与(7-1-5), 磨麿→麿麿(9-2-3), 草際→艸際(10-1-3), 頭無岳→頭無嶽(12-1-3)’ 등 5곳에서 쓰였다.

속자도 여러 이본에 사용되었다. ‘藥物珍→藥物玼(1-2-7), 君眞→君真(1-4-3), 來從→来從(2-2-3,4), 祠廟→祠庙(3-2-4), 來往→来往(4-2-3),

水草間→水草间(5-2-7), 天閑→天闲(5-4-7), 盡入→尽入(6-4-3), 活人須→活人須(6-4-7), 閭閻→闾閻(11-1-1,2), 樂育→樂育(11-2-5), 斷地→断地(11-3-5), 地脈→地脉(11-3-7), 酒杯→酒杯(14-2-7), 噴氣來→噴氣来(14-4-7)' 등 모두 17곳에서 나타난다.

약자의 사용도 눈에 띈다. '當初→当初(2-1-1), 數千里→数千里(4-1-5)' 등 2곳에서 나타난다. 이를 이본별로 살펴보면, '當初→当初(2-1-1)'에서는 '当初'가 『증보탐라지』에서 사용되었으며, '數千里→数千里(4-1-5)'에서는 '數千里'가 『심재집』에서 사용되었다.

고자의 사용도 눈에 띈다. '錢龍→錢竜(10-1-7)'에서 '錢竜'은 『증보탐라지』만 사용되었는데 반해 나머지 모든 이본들에서는 '錢龍'이 사용되었다.

통자의 사용도 눈에 띈다. '游庠序→遊庠序(11-1-5)'에서 '游庠序'는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이원진)·『남사록』(규장각본)·『남사일록』 등 11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遊庠序'는 『탐라지』(이원조·동경대학본·담수계)·『심재집』 등 4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글자는 다르나 문맥상 의미가 통하는 글자들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 '包重→包裹(1-2-2), 奚徒→奚童(4-1-4), 掛却→過却(4-3-3), 縹氣→縹緲(5-1-4), 日暮→日曛(7-3-2), 猶全→猶含(8-4-4), 露宿→路宿(9-4-3), 擢巍科→捷巍科(11-4-5)' 등 모두 8곳이다.

#### 4. 대교 결과에 대한 분석

16종의 이본을 오자·동자·속자·약자·고자·통자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단, 앞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피한다.

첫째, 오자를 이본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담수계의 『증보탐라지』에서는 '伉儷→伉侶(2-2-2), 己亡→己亡(3-1-3), 車螯→車螯(7-1-2), 雲

嵐→雲風(12-3-4) 등 4곳에서 오자가 쓰였다. ‘伉儷→伉侶(2-2-2)’에서는 고을나·양을나·부을나 세 신인(神人)이 배우자를 맞이한다는 문맥임으로 ‘항려’는 ‘배우자’의 뜻인 ‘伉儷’라고 써야 바른 표기가 된다. ‘已亡→已亡(3-1-3)’에서는 성주가 ‘이미 죽었고’의 뜻으로 ‘이미’의 ‘已’를 ‘己’로 잘못 적고 있다. ‘車螯→車螯(7-1-2)’에서는 조개의 일종인 ‘대합’의 뜻인 ‘車螯’가 ‘큰 거북’의 뜻인 ‘車螯’보다 문맥상 더 어울린다. ‘雲嵐→雲風(12-3-4)’에서는 문맥상 ‘雲嵐’과 ‘雲風’ 다 통할 수 있는 표기이나 『증보 탐라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본에서 ‘산속의 운무’의 뜻인 ‘雲嵐’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雲嵐’이 정본에 더 가까운 표기이다.

청음유집본 『남사록』에서는 ‘已亡→已亡(3-1-3), 海月→螟蛤(7-1-3, 7-1-4), 相笑→相哭(10-3-7)’ 등 모두 4곳에서 오자가 보인다. ‘海月’에서는 대부분의 이본에서 ‘해파리’의 뜻인 ‘海月’로 적고 있는데 반해 청음유집본 『남사록』에서만 유일하게 ‘말린 오징어와 조개’의 뜻인 ‘螟蛤’으로 적고 있다. ‘相笑→相哭(10-3-7)’에서는 뜰에서 풀을 베다 전룡(錢龍)을 만나면 술 따르고 향 피워서 비는 제주의 미개한 풍속을 욕지 사람들이 ‘서로 비웃으니’의 뜻인데 ‘서로 통곡하니’의 ‘相哭’으로 적어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경원출판사 간행의 『속동문선』에서는 ‘鮮還→鱗還(7-4-6), 還怨→還恐(10-4-2)’ 2곳에서 오자가 쓰였다. ‘鮮還→鱗還(7-4-6)’에서는 문맥상 여러 고깃배들이 ‘생선 싼고 돌아오네’의 뜻이므로 ‘鮮’과 ‘鱗’이 문맥상 다 통할 수 있으나 나머지 이본에서는 ‘鮮’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文鱗(7-2-4)’에서 이미 ‘鱗’을 쓰고 있는데 다시 같은 수에서 ‘鱗’을 쓰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還怨→還恐(10-4-2)’에서는 뜰에서 풀을 베다 전룡을 만나면 술 따르고 향 피우는 제주의 풍속을 욕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투어 비웃으니 도리어 지네가 대통에 있음을 원망한다는 ‘還怨’이 ‘도리어 두려워한다’는 ‘還恐’보다 문맥상 더 어울린다. 또한 ‘還恐’은 『속동문선』에서만 사용된 표기이며 나머지 이본들에서는 모두 ‘還怨’을 쓰고 있어 ‘還怨’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규장각본 『남사록』에서는 ‘海月→蛤月(7-1-3), 相笑→相哭(10-3-7)’ 등 2곳에서 오자가 나타나며, 『남사일록』에서는 ‘車螯→車鰲(7-1-2), 海月→蛤月(7-1-3)’ 등 2곳에서 오자가 쓰였다.

이 외에도 『속동문선』 이본들에서는 ‘還怨→還恐(10-4-2)’ 1곳에서, 『탐라지』(이원조·동경대학본)·『심재집』에서는 ‘車螯→車鰲(7-1-2)’에서 오자가 쓰였다.

둘째, 동자를 이본별로 정본에 가까운 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水草→水艸(5-2-6)’의 경우 ‘水草’는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남사록』·『남사일록』 등 15종 대부분의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水艸’는 『심재집』 1종 이본에서만 사용되었다. ‘水草’가 간행 연대가 앞선 여러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sup>43)</sup>

‘海月與→海月与(7-1-5)’에서는 ‘海月與’가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남사록』·『심재집』 등 15종의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海月与’는 『남사일록』 1종 이본에서만 사용되었다. ‘海月與’가 간행 연대가 앞선 여러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麿麿→麿麿(9-2-3)’에서는 ‘麿麿’가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심재집』 등 13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麿麿’는 『남사록』·『남사일록』 등 3종 이본에서만 사용되었다. 즉 『남사록』 계통의 이본에서만 ‘麿麿’ 표기가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이본들에서는 모두 ‘麿麿’ 표기를 사용하여 ‘麿麿’가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草際→艸際(10-1-3)’에서는 ‘水草→水艸(5-2-6)’와 같이 『심재집』 1종 이본에서만 ‘水艸’가 사용되었는데 반해 나머지 15종 이본들에서는 ‘水草’라고 표기되어 ‘水草’가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43) 정본에 가까운 표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순차적으로 우선시하였다. 첫째, 오자가 아니어야 한다. 둘째로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에 표기될수록 좋다. 그러나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에서도 가끔 오자 쓰임이 보인다. 셋째로 표기가 여러 이본에 두루 사용될수록 좋다.

‘頭無岳→頭無嶽(12-1-3)’에서는 ‘頭無岳’이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이원진·담수계)·『남사록』·『남사일록』·『심재집』·『탐라시선』 등 14종 모든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頭無嶽’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과 동경대학본 『탐라지』 등 2종에서만 사용되었다. ‘頭無岳’이 간행 연대가 앞선 여러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셋째, 속자를 이본별로 정본에 가까운 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藥物珍→藥物玆(1-2-7)’에서는 ‘藥物珍’이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담수계)·『남사록』(청음유집본)·『심재집』 등 11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藥物玆’은 『탐라지』(이원진·이원조·동경대학본)·『남사록』(규장각본)·『남사일록』 등 5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藥物珍’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많이 쓰이고 있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君眞→君真(1-4-3)’에서는 ‘君眞’은 『속동문선』(국립중앙도서관본·경원출판사본)·『남사록』(청음유집본) 등 3종 이본에서만 사용되었는데 반해 ‘君真’은 『점필재집』·『속동문선』(규장각본·경희출판사본)·『탐라지』·『남사록』(규장각본)·『남사일록』·『심재집』 등 13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君真’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來從→來從(2-2-3)’에서는 ‘來從’이 『속동문선』(국립중앙도서관본·경원출판사본)·『탐라지』(이원진·동경대학본)·『남사록』(청음유집본) 등 5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來從’은 『점필재집』·『속동문선』(규장각본·경희출판사본)·『탐라지』(이원조·담수계)·『남사록』(규장각본)·『남사일록』·『심재집』 등 11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來從’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來從→來從(2-2-4)’에서는 ‘來從’이 『속동문선』·『탐라지』(동경대학본·담수계)·『남사록』(규장각본) 등 7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來從’은 『점필재집』·『탐라지』(이원진·이원조)·『남사록』(청음유집본)·『남사일록』·『심재집』 등 9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來從’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많이 사용되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祠廟→祠庙(3-2-4)’에서는 ‘祠廟’가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이원진·이원조·동경대학본)·『심재집』 등 12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祠庙’는 『탐라지』(담수계)·『남사록』(규장각본·청음유집본)·『남사일록』 등 4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祠廟’가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하여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祠庙’는 특히 『남사록』 계통 이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하다.

‘來往→来往(4-2-3)’에서는 ‘來往’이 『속동문선』(국립중앙도서관본·경원출판사본)·『탐라지』(이원진)·『남사록』(청음유집본) 등 4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来往’은 『점필재집』·『속동문선』(국립중앙도서관본·경원출판사본)·『탐라지』(이원조·동경대학본·담수계)·『남사록』(규장각본)·『남사일록』·『심재집』 등 12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来往’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에 두루 사용되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水草間→水草间(5-2-7)’에서는 ‘水草間’이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이원진·이원조·동경대학본)·『남사록』 등 13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水草间’은 『탐라지』(담수계)·『남사일록』·『심재집』 등 3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水草間’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天閑→天闲(5-4-7)’에서는 ‘水草間→水草间(5-2-7)’에서처럼 ‘天閑’이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이원진·이원조·동경대학본)·『남사록』 등 13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天闲’이 『탐라지』(담수계)·『남사일록』·『심재집』 등 3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天閑’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盡入→尽入(6-4-3)’에서는 ‘盡入’이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남사록』·『심재집』 등 15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尽入’은 『남사일록』 1종 이본에서만 사용되었다. ‘盡入’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活人須→活人湏(6-4-7)’에서는 ‘活人須’가 『점필재집』(기유본·기사본)·『탐라지』(동경대학본·담수계)·『남사록』·『남사일록』 등 7종 이본에서 사용

되었는데 반해 ‘活人湏’가 『점필재집』(경진본·기축본)·『속동문선』·『탐라지』(이원진·이원조)·『심재집』 등 9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活人湏’가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많이 사용되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閭閻→閭閻(11-1-1,2)’에서는 ‘閭閻’이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남사록』 등 14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閭閻’이 『남사일록』·『심재집』 등 2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閭閻’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樂育→樂育(11-2-5)’에서는 ‘樂育’이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남사록』 등 14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樂育’은 『남사일록』·『심재집』 등 2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樂育’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斷地→断地(11-3-5)’에서는 ‘斷地’가 『점필재집』(기유본·기사본)·『속동문선』·『탐라지』(이원진·동경대학본·담수계)·『남사록』 등 11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断地’가 『점필재집』(경진본·기축본)·『탐라지』(이원조)·『남사일록』·『심재집』 등 5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断地’가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사용되어 더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地脈→地脉(11-3-7)’에서는 ‘地脈’이 『남사록』(청음유집본) 1종 이본에서만 사용되었는데 반해 ‘地脉’은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남사록』(규장각본)·『남사일록』·『심재집』 등 15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地脉’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酒杯→酒盃(14-2-7)’에서는 ‘酒杯’가 『탐라지』·『남사록』·『남사일록』 등 7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酒盃’가 『점필재집』·『속동문선』·『심재집』 등 9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酒盃’가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많이 사용되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특히 ‘酒杯’는 『탐라지』 계통과 『남사록』 계통의 이본들에서 쓰이고 있다.

‘噴氣來→噴氣来(14-4-7)’에서는 ‘噴氣來’가 『속동문선』(국립중앙도서관본·경원출판사본)·『탐라지』(동경대학본·담수계)·『남사록』(청음유집본) 등 5

중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噴氣來’가 『점필재집』·『속동문선』(규장각본·경희출판사본)·『탐라지』(이원진·이원조)·『남사록』(규장각본)·『남사일록』·『심재집』 등 11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噴氣來’가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넷째, 약자를 이본별로 살펴보면, ‘當初→当初(2-1-1)’에서는 ‘當初’가 『증보탐라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본에서 사용되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며, ‘數千里→數千里(4-1-5)’에서는 ‘數千里’가 『심재집』을 제외한 나머지 이본들에서 두루 사용되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다섯째, 고자를 이본별로 살펴보면 ‘錢龍→錢竜(10-1-7)’에서 ‘錢竜’은 『증보탐라지』만 사용되었는데 반해 나머지 모든 이본들에서는 ‘錢龍’이 사용되었다. ‘錢龍’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여섯째, 통자를 이본별로 살펴보면 ‘游庠序→遊庠序(11-1-5)’에서 ‘游庠序’는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이원진)·『남사록』(규장각본)·『남사일록』 등 11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遊庠序’는 『탐라지』(이원조·동경대학본·담수계)·『심재집』 등 4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游庠序’가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단지 『남사록』(청음유집본)에서만 ‘淹庠序’라고 변이된 표기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글자는 다르나 문맥상 의미가 통하는 글자들을 이본별로 살펴보면, ‘包重→包裹(1-2-2)’에서는 ‘包重’이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이원진)·『남사록』·『남사일록』 등 12종 이본에서 사용하였는데 반해 ‘包裹’는 『탐라지』(이원조·동경대학본·담수계)·『심재집』 등 4종 이본에서 사용하였다. ‘包重’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하고 있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奚徒→奚嚳(4-1-4)’에서는 ‘奚徒’가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심재집』 등 13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奚嚳’는 『남사록』·『남사일록』 등 3종 이본에서만 사용되었다. ‘奚徒’가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奚嚳’는 『남사록』 계통의 이본에

서만 사용하였다.

‘掛却→過却(4-3-3)’에서는 ‘掛却’이 대부분의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過却’은 단지 『탐라지』(이원조) 1곳에서만 사용되었다. ‘掛却’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縹氣→縹緲(5-1-4)’에서는 ‘縹氣’가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심재집』 등 13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縹緲’는 『남사록』·『남사일록』 등 3종 이본에서만 사용되었다. ‘縹氣’가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縹緲’도 ‘奚啻’처럼 『남사록』 계통의 이본에서만 사용하였다.

‘日暮→日曛(7-3-2)’에서는 ‘日暮’가 대부분의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日曛’은 『남사일록』 1곳에서만 사용되었다. ‘日暮’가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猶全→猶舍(8-4-4)’에서는 ‘猶全’이 『점필재집』·『속동문선』·『남사록』·『남사일록』 등 11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猶舍’이 『탐라지』·『심재집』 등 5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猶全’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탐라지』 계통 이본에서는 ‘猶舍’를 사용하였다.

‘露宿→路宿(9-4-3)’에서는 ‘露宿’이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이원조·동경대학본)·『남사록』·『남사일록』·『남사일록』 등 14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路宿’은 『탐라지』(이원진·담수계) 등 2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다. ‘露宿’이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에 두루 사용되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擢巍科→捷巍科(11-4-5)’에서는 ‘擢巍科’가 『점필재집』·『속동문선』·『탐라지』·『심재집』 등 13종 이본에서 사용되었는데 반해 ‘捷巍科’는 『남사록』·『남사일록』 등 3종 이본에서만 사용되었다. ‘擢巍科’가 간행 연대가 앞선 이본들에 두루 사용되어 정본에 가까운 표기이다. ‘擢巍科’도 ‘奚啻’나 ‘縹緲’처럼 『남사록』 계통의 이본에서만 사용하였다.

이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오자가 한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이본은 『점필재집』과 이원진의 『탐라지』이다. 그러나 ‘猶全→猶舍(8-4-4)’에서 보면 대부분의 이본에서 ‘猶全’을 사용되었는데 반해 ‘猶舍’는 이원조의 『탐라지』 등 『탐라지』 계통 이본에서만 사용되거나 ‘露宿→路宿(9-4-3)’에서처럼 ‘露宿’이 이원진과 담수계의 『탐라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원진의 『탐라지』보다 『점필재집』이 더 정본에 가까운 이본이다. 이에 반해서 오자가 가장 많이 쓰인 이본은 『증보탐라지』(담수계)와 『남사록』(청음유집본)으로 각각 4곳에서 발견되어 이본으로서의 완성도가 가장 낮았다.

둘째, 다른 이본들과 비교할 때 『속동문선』·『탐라지』·『남사록』 등에서는 각기 독특한 표기들을 사용하고 있다. 『속동문선』 이본들에서는 ‘還怨(10-4-2)’을 ‘還慇’이라 하였고, 『탐라지』에서는 ‘包重(1-2-2)’을 ‘包裹’, ‘猶舍(8-4-4)’을 ‘猶全’이라 하였으며, 『남사록』에서는 ‘奚徒(4-1-4)’를 ‘奚筓’, ‘縹氣(5-1-4)’를 ‘縹緲’, ‘相笑(10-3-7)’를 ‘相哭’, ‘擢巍科(11-4-5)’를 ‘捷巍科’라고 표기하였는데, 『남사록』에서 가장 많은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정본과는 거리가 먼 표기들이며, 결국 『속동문선』·『탐라지』·『남사록』 등은 정본과 거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속동문선』은 『점필재집』 계통의 이본으로 ‘還怨→還慇(10-4-2)’을 살펴보면 『속동문선』에서 ‘還怨’이 ‘還慇’으로 변이되고 있다. 또한 『속동문선』 이본 속에서도 ‘君眞→君真(1-4-3), 來從→來從(2-2-3), 來往→來往(4-2-3)’ 등을 통해서 살펴볼 때 국립중앙도서관본과 경원출판사본 『속동문선』에서는 ‘君眞, 來從, 來往’ 등으로 표기되었는가 하면 규장각본과 경희출판사본 『속동문선』에서는 ‘君真, 來從, 來往’ 등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국립중앙도서관본과 경원출판사본 『속동문선』이 같은 계통이고, 규장각본과 경희출판사본 『속동문선』이 또 다른 계통의 이본이다.

넷째, 『심재집』은 『탐라지』 계통의 이본이며, 이원조 이후의 『탐라지』들은 이원진의 『탐라지』에서 변이되고 있다. ‘包重→包裹(1-2-2), 露宿→路宿(9-4-3), 游庠序→遊庠序(11-1-5)’에서도 ‘包裹, 露宿, 遊庠序’ 등은

이원진의 『탐라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기인 대신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이나 동경대학본 『탐라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표기이다. 그러나 ‘掛却→過却(4-3-3)’에서 보면 ‘過却’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서만 사용하는 대신 ‘掛却’은 나머지 모든 이본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심재집』은 결국 동경대학본 『탐라지』 계통이다.

다섯째, 『남사일록』은 『남사록』 계통의 이본이다. ‘奚徒→奚菑(4-1-4), 縹氣→縹緲(5-1-4), 擢巍科→捷巍科(11-4-5)’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본에서 ‘奚徒, 縹氣, 擢巍科’로 표기되었는데 반해 『남사록』과 『남사일록』에서만 ‘奚菑, 縹緲, 捷巍科’로 표기되어 『남사일록』은 『남사록』 계통의 이본임을 말해준다.

이처럼 시대를 달리하면서 수록문헌에 따라 적잖은 변이 내지는 착종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탐라가>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본을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셈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김종직의 <탐라가>에 대한 이본을 고찰하여 정본을 파악하고 이본 간의 계통을 살펴보았다.

김종직의 <탐라가>를 수록하고 있는 문헌들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점필재집』처럼 김종직의 작품들을 수집하여 간행한 점필재집류, 『속동문선』처럼 여러 문사의 시문을 초선하라는 왕명을 받고 간행한 속동문선류, 『탐라지』처럼 제주 지지에 수록된 탐라지류, 『남사록』이나 『남사일록』처럼 저자들이 제주에 관리로 왔던 경험을 기록한 남사록류나 남사일록류, 『심재집』처럼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한 개인의 평생에 걸쳐 정리한 문학과 역사를 기술한 심재집류 등이다.



점필재집류에는 경진본(1520, 南袞序), 기축본(1649, 李曼刻), 기유본(1789, 李獻慶序), 기사본(1869, 金埴刻), 임진본(1892, 宋秉璿跋), 정사본(1917, 金基鴻校), 무인본(金泰鎭跋) 『점필재집』 등 7종이 있는데, 이본 간에는 속자 중심으로 글자의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속동문선류에는 을해자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도서관본, 필서체자 목판본의 규장각본, 경희출판사 영인본(1966), 경원문화사 영인본(1992) 등 4종이 있는데, 속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립중앙도서관본과 경원출판사본이 같은 계통이고, 규장각본과 경희출판사본이 같은 계통의 이본이다. 탐라지류에는 이원진의 『탐라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동경대학본 『탐라지』, 답수계의 『탐라지』 등 4종이 있는데, 이본 간에는 부분적으로 글자의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사록에는 규장각본 『남사록』, 청음유집본 『남사록』 등 2종이 있는데, 후자는 전자를 재정리한 것이다. 남사일록류는 이증의 『남사일록』이 있는데, 남사록류 계통에 가까운 이본이다. 심재집류에는 김석익의 『심재집』이 있는데, 동경대학본 『탐라지』 계통의 이본이다.

오자·속자·동자·통자·고자 등을 중심으로 이본을 대교한 결과 가장 정본에 가까운 이본은 『점필재집』으로 오자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가장 높았다. 다른 이본들과 비교할 때 『속동문선』·『탐라지』·『남사록』 등에서는 정본과 달리 독특한 표기들을 사용하면서 변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 權鼈, 『海東雜錄』下(影印), 太學社, 1986, 187쪽.
- \_\_\_\_\_, 『海東雜錄』, 민족문화추진회, 권덕주 역, 『국역대동야승』V, 민족문화추진회, 1971, 191쪽.
- 金斗奉, 『濟州島實記』, 濟州市愚堂圖書館, 2003, 167쪽.
- 金尙憲, 『南槎錄』(奎章閣本), 濟州道, 『濟州史料叢書(I)』, 濟州道, 1998, 372~375쪽.
- \_\_\_\_\_, 金禧東 譯, 『南槎錄』, 永嘉文化社, 1992, 129~133쪽.
- \_\_\_\_\_, 洪琦杓 譯註, 『南槎錄(上)』, 濟州文化院, 2008, 94~96쪽.
- 金錫翼, 『心齋集』(郷土資料叢書1·2), 濟州文化社, 1990, 374~376쪽.
- 金宗直, 『佔畢齋集』(奎章閣本),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12(影印), 民族文化推進會, 1996, 447~448쪽.
- \_\_\_\_\_, 『佔畢齋先生文集』1(國立中央圖書館本)
- \_\_\_\_\_, 『佔畢齋集』(栖碧外史 雙梅堂本),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李朝名賢集』2(影印),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86, 228~229쪽.
- \_\_\_\_\_, 『佔畢齋集』1(日本尊經閣文庫本)
- \_\_\_\_\_, 『佔畢齋先生全書』一~七(啓明漢文學研究會研究資料叢書IV), 學民文化社, 1996.
- 김종식, 임정기 역, 『국역 점필재집』 I~III, 민족문화추진회, 1996, 9~11쪽.
- 南萬里 外, 『耽羅誌』(日本東京大學所藏本),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9, 231~233쪽.
- 淡水契, 『增補耽羅誌』, 濟州淡水契, 1954, 284~285쪽.
- \_\_\_\_\_, 『增補耽羅誌』, 濟州文化院, 2004, 252~254쪽.
- \_\_\_\_\_, 吳文福 外譯, 『譯註增補耽羅誌』, 濟州文化院, 2005, 536~539쪽.

- 申用漑 外, 『續東文選』(國立中央圖書館本)  
\_\_\_\_\_, 『續東文選』(奎章閣本)  
\_\_\_\_\_, 『韓國漢詩文選集』5, 경원문화사, 1992, 193~194쪽.  
\_\_\_\_\_, 양주동 외 공역, 『국역동문선』10, 솔출판사, 1968, 674~676쪽.
- 吳文福 編譯, 『耽羅詩選』, 이화문화출판사, 2006, 395~408쪽.  
李源祚, 『耽羅誌草本 外』(影印),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9, 157~159쪽.  
李源祚, 고창석 외 역, 『耽羅誌草本』(上), 濟州教育博物館, 2007, 188~150쪽.  
李源祚, 고창석 외 역, 『耽羅誌草本』(下), 濟州教育博物館, 2008.  
이원진, 김찬흠 외 역,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115~117쪽.  
이원진, 김상조 역, 『耽羅志』,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91, 120~122쪽.  
李增, 金益洙 譯, 『南槎日錄』, 濟州文化院, 2001, 246~248쪽.  
제주도교육위원회,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1, 104~106쪽.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臥遊錄』(韓國學資料叢書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340~343쪽.
- 박선정, 『佔畢齋 金宗直 文學 研究』, 二友出版社, 1989, 145~147쪽.  
이원걸, 『金宗直의 풍교 시문학 연구』, 박이정, 2004, 227~238쪽.
- 김성규, 「佔畢齋의 歷史·風俗詩에 대하여Ⅱ : <탁라가>·<금성곡>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11, 한성대 국어국문학과, 1992, 102~106쪽.  
김운수, 「『佔畢齋集』의 판본 연구」, 『書誌學研究』35, 書誌學會, 2006, 307쪽.  
박선정, 「佔畢齋 金宗直 研究」, 高麗大 博士論文, 1986, 187~191쪽.  
윤치부, 「김종직 <탁라가>의 존재양상과 작품세계」, 『초등교육연구』

- 14/1, 제주대 초등교육연구소, 2009, 1~36쪽.
- \_\_\_\_\_, 「최부 <탐라시>의 이본 고찰」, 『새국어교육』86,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459쪽.
- 이연순, 「佔畢齋 金宗直의 樂府詩 研究」,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0, 83~85쪽.
- 이원걸, 「金宗直의 紀俗詩에 反映된 民族 生活相과 風俗美」, 『漢文學報』5, 우리한문학회, 2001, 55~85쪽.
- \_\_\_\_\_, 「金宗直의 連作 紀俗詩에 形象된 觀風易俗 理念」, 『退溪學』14, 安東大 退溪學研究所, 2004, 29~65쪽.
- 정경주, 「佔畢齋 紀俗詩의 文明意識에 대하여」, 『石堂論叢』16, 東亞大 石堂傳統文化研究院, 1990, 137~140쪽.
- 정석용, 「金宗直 漢詩 研究」, 壇國大 碩士論文, 1986, 75~78쪽.
- \_\_\_\_\_, 「金宗直의 漢詩 研究」, 暎園大 博士論文, 2001, 71~73쪽.

투고일 : 2011년 12월 22일, 심사 : 2012년 1월 16일~ 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4일

<Abstract>

## Consideration Different Versions of Takraga written by Kim Jong-jik

Yoon, Chi-boo

This thesis is a study on different versions of Takraga written by Kim Jong-jik, a quatrain with seven characters per line which expresses climate and products of Jeju. This study intended to know lineage of original version and different versions. Some documents listing 14 poems of Takraga are extant – Jeompiljae collections kind for works of Kim Jong-jik, Second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kind published by King's order, Tamraji kind contained in Record of Jeju, Namsarok or Namsayilrok kind where experiences of officials stayed in Jeju were recorded, and Simjae collections kind where literature and history are recorded for lifetime by an author who lived in Japanese ruling period. Jeompiljae collections kind have 7 kinds of versions such as Gyeongjin version Jeompiljae collections, Gichuk, Giyu, Gisa, Yimjin, Jeongsa, and Muin. There are changes of letters focused on simplified letters between different versions. Second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kind has 4 kinds such as National Library of Korea version Second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assumed as first edition in Eulhae letter, Palace Library version of wood printing blocks in Pilseoche letter, photoprint version of Gyeonghee publishing company, photoprint version of Gyeongwon publishing company. Tamraji kind has 4 kinds such as Tamraji by Lee Won-jin , Tamraji in first edition by Lee Won-jo, Tamraji in Tokyo

university version, and Tamraji by Damsugea. There are partial changes of letters between different versions. Namsarok kind has two kinds such as Namsarok in Palace Library version, Namsarok in Cheongeumyujib version – the latter was made by arranging the former again. Namsayilrok kind has Namsayilrok by Lee jeung – this is a different version near Namsarok kind. Simjae collections kind has Simjae collections by Kim Seok-ik and this is a different version of Tamraji in Tokyo university version. Among them, Jeompiljae collections is a different version most near original version – this version shows high completeness so that misprint even one cannot be found.

**Key words : Takraga, Kim Jong-jik, Jeompiljae collections, Second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Tamraji, Namsarok**